

지령 1000호

22년의 동행, 8,000일의 은혜



1000호, 미주 한인교회와 함께한 동행의 기록

2004년 1월 23일 기독교민신문(영문판: Christianity Weekly)이란 제호로 창간된 기독일보가 2026년 3월 13일 1,000호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2004년 2월 첫 신문을 발행한 이래, 약 22년 미주 한인교회의 사역 현장에 함께하며, 그 현장의 이야기를 이민사회에 전달하고, 세속주의, 탈기독교, 탈중심주의, 성혁명, 낙태 옹호 운동 등의 도전 속에서 복음의 가

치를 수호하고, 복음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00호 신문을 발행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이 미주 한인 기독교 언론이라는 좁고 험한 길

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취재지로 향했던 것, 아뭏든 내린 시간, 오타나 실수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신문 파일을 확인하며 편집실의 불을 밝혔던 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을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밤낮없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몸부림쳤던 한인교회 안에 넘쳐들었던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기독일보의 지난 22년은 그 한인교회와의 동행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1000호를 준비하며, 초창기

2004년-2005년도 발행된 신문들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지면 속에는 무엇보다 '함께'라는 이름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2004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흐드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막기 위해 교단과 교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셀비의 경기상회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연금 회수기간: 3년~6년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7:20am / 2부 9:10am / 3부 11:20am
 4부(대학청년) 2:00pm
 EM예배 1부 9:20am, 2부 11:30am
 금요성령집회
 7:30pm
 특별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15am, 토 6:00a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 | |
|----------------------------|--------------------|
| 우리방송 AM 1230 | 오전 08:30(주 일) |
|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 오전 08:00(주 일) |
|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 오후 12:00, 9:00(주일) |
| San Diego Radio Korea | 오후 04:00(월요일) |
|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 오후 04:30(화요일) |
|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 오후 08:00(화요일) |
| CBSTV CH 20.12 | 오후 09:00(수요일) |
| KCBS Chicago AM 1590 | 오후 07:00(수요일) |
| JSTV 미국지역 CH 668 | 오전 06:00(목요일) |
|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 오전 09:00(금요일) |
| Radio Seoul AM 1650 | 오전 05:30(금요일) |
| 미주복음방송 AM 1190 | 오전 11:00(금요일) |
| CTS TV 한국(금) | 오전 05:00(한국시간) |
| Radio Seoul AM 1650 | 오전 06:30(토요일) |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샘 신 목사 공화당 후보 출마 “가정과 공동체 섬기기 위해”

미군 복무 및 경찰 근무, 지역 사회 봉사에 헌신, 가정의 가치와 부모의 권리 강조

샘 신 목사(Rev. Sam Shin)가 캘리포니아 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섬기는 지도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지난 3일 LA 카운티 레지스터 오피스를 방문해 출마 신청서를 작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민 1.5세로 미국에 정착한 그는 미군 복무와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해 왔다. 현재는 샘 커뮤니티



한인 단체에서 봉사해 온 샘신 목사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 샘신 목사 제공

재단,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한인 사회 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출마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민자 경험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신 목사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언어도, 인맥도, 기반도 없는 상태였지만 미국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군

인으로 나라를 섬겼고, 경찰관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을 했으며, 지금은 목사로서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7,5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끌며 다음 세대가 책임감 있는 시민과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특히 가정의 가치와 부모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며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정의 가치와 부모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상원의원이 될 경우 △공공 안전 회복 △소상공인 보호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책임 있는 정부 구축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나는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출마했다”며 “겸손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하나님의 손길로 쌓아온 1000호

→ 1면 기사 <1000호>에 이어서

또한, 주일날 개최되었던 LA 마라톤의 요일을 변경하기 위해 교계가 함께 연합해 마침내 날짜 변경을 이루어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미국교회를 넘어, 전미주 한인교회들이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독교일의 ‘연합’의 정신은 2019년 팬데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되고, 교회 문이 닫히는 상황 속에서, 그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작은교회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워브릿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난 1기 워브릿지 사역은 느슨해졌던 한인교회의 연합을 다시 단단히 묶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일은 ‘연합’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일이 지난 2023년 시작한 제1기 성경필사 사역은 한인교계의 고령화와 다음 세대의 탈교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속

에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역이었습니다.

‘연합’과 함께, 기독교일의 기초가 된 것은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태복음 5장 37절)였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무너지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되는 시대 가운데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애썼음을, 초창기 신문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20세 초반 젊은 기자들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흐름을 복음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정보나 사건의 나열이 아닌, 기자 스스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고, 바른 관점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초창기 기자들이 품었던, 그 바른 관

점에 관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는 기독교일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기독교 언론으로서 사명과 자세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언론의 길을 더욱 성실히 걸어갈 것입니다.

2004년-2005도 한국어 판에는 이영선 기자, 김준형 기자, 김은혜 기자, 강진영 기자, 권희영 기자, 김대원 기자, 다니엘 맹 기자, 임혜조 기자, 이지희 기자, 조정우 기자, 이세영 기자, 이재학 기자, 윤주이 기자 등이 함께했고, 영어판에는 Gene Kahng, Lillian Kwon, Pauline J., Katherine Phan, Edwin Tsuei 기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칼럼리스트로는 배본철 교수(성결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장),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상임총무), 박명수 교수(교회사 이야기) 서울 신학대학교 부설 성결교회역사 연구소장), 김종춘 목사(www.dreammei.com 운영자),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추부길 목사(한국가정사역연구소 소장), 노승

환 목사(나성 영락교회 교육 목사), 송규식 목사(은혜한인교회 음악목사),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 담임) 등이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이름들에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주들의 수많은 한인교회들의 문을 두드렸던 동역자들의 헌신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일의 지난 22년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의 섬김이 모여 만들어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오늘의 기독교일보가 서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매주 저희 신문을 기다려 주시고, 기사를 읽어주고, 때로는 기도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독자들과 교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독교 언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후원해 주신 교회와 단체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1000호 발행은 가능하지 않았습니.

이제 기독교일은 다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하

기 전,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배달되던 종이신문을 기다리던 풍경은 과거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CNN 창업자 테드 터너는 81년에 10년 신문을 새로운 기능을 가진 첨단 미디어의 출현때문에 10년 이내에 사멸하게 될 것이라 단언했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일일 총 발행 부수가 수백만 부에 달했던 LA타임즈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일간 인쇄 발행 부수는 79,000부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종이신문의 사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종이 신문은 온라인 신문이 간직하지 못하는, 특정 사건, 사회적 흐름, 교계 기록 등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1,000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이루신 이야기들이 한 장 한 장 쌓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기독교일은 앞으로도 그 기록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의 기쁨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전하는 언론으로서 서겠습니다.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금 2기 모집

캘리포니아 벨리지역에 위치한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에서 미주 신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헤세드 장학금은 총 8명의 장학생에게 각 \$5,000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미주 내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인 풀타임 신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장학금은 한인 유학

생뿐만 아니라 1.5세 및 2세 신학생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2026년 가을 학기 풀타임 입학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교회에서 마련한 4박 5일간의 HESED TRIP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여행을 위한 비행기 비용 및 모든 경비는 교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손창민 목사는, “지난 해에는 신학생 5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 장학금은, 신실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한 교회’와 ‘한 민족’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헤세드의 은혜가 더 많은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을 넘어 신학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교회는 교회와 선교지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신학생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세드 장학금은 3월 31일(화) 동부시간 기준 자정까지 신청을 받

는다. 온라인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필수 서류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구글 폼: <https://forms.gle/KcGT3VppUpeYX6Pi8>

서류 제출 : heseed@churcheveryday.org /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 hyesungkim@churcheveryday.org

기독교일보 창간 22주년 및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Broken but Becoming
무너진 자리에 피어나는 소망

Healing, Trauma and the Power to Grow



수잔 정 박사
M.D., Psychiatry



정달성 박사
Psy.D. Clinical Psychology & Pastoral Ministry



최은아 박사
Ph.D. Family Therapy

ZOOM I.D. 473 513 6184

아픔을 넘어 동행의 힘을 나누는 시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3월 31일 화요일 (12:50-1:50pm, PT) - 수잔 정 박사 : [ADHD와 삶의 회복] 진단과 치료를 통해 찾아온 희망과 행복
- 4월 7일 화요일 (12:50-1:50pm, PT) - 정달성 박사 : [상처의 구속과 은혜] 기독교인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유연성
- 4월 14일 화요일 (12:50-1:50pm, PT) : [트라우마와 동행] 상처를 치유하는 함께함의 능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학사 과정

- 한국어 과정 - 가정상담학, 교육학, 글로벌경영학, 신학
- English -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Chinese - Theology

석사 과정

- 한국어 과정 - 목회학, 목회학 전문원목과정(Chaplaincy) 목회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 English - Master of Divinity in Culturally Competent Pastoral Leadership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Chinese - Master of Divinity

박사 과정

- 목회학 박사 - D.Min in Compelling Preaching, D.Min in Ministry Skills for a Thriving Congregation
- 선교학 박사 -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 현역 및 재향 군인 학자금 및 재정 지원
- 각종 장학금과 연방 학자금 (FSA) 지원
- Cal Grant와 Pell Grant 지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는 2026년 봄학기 Lecture Series를 통해 트라우마와 치유,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학문적·실천적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15605 Carment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서명운동 출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이 미주 한인교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청원 서명운동 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출범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교협과 성서화운동본부, KCMUSA 등이 함께 주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의 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으며,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준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각각 체포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선교사는 총현선교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알려졌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다음 해 5월 30일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국기·최준길 선교사도 2015년 6월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독일보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으며,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cdn-jotfor.ms/260038588865167>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윤권 목사는 이번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 미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 목사는 “오늘 시작되는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향한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사랑받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서명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 대표로 참석한 김정삼 집사는 “저는 북한에 억류된 지 12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이라며 “내 동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오늘 시작되는 한 사람의 서명과 기도가 묶인 사슬을 풀어 선교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는다. 봄이 되면 열어 있던 물이 녹아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하루빨리 풀려나 기쁨의 소식

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저 역시 북한에서 1년 넘게 독방에 갇혀 있었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선교사들이 석방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라며 “이 운동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문제다. 마음을 모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 선교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는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을 사랑하며 국수 공장을 세워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분”이라며 “김국기 선교사와 최준길 선교사 역시 행동으로 북한을 사랑했던 분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촉구 결의문’을 통해 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미주 한인사회와 교회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서명운동 진행 방식을 설명하며, “서명은 홍보 팸플릿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서명도 가능하다”며 “오프라인 서명은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서명은 4월 중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아진 서명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북한대표부, 평화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토마스 멩 기자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석방 청원 서명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국윤권 목사
부위원장: 현병훈 장로(사랑의교회), 최준원 장로(총현선교교회)
실무책임자: 김학송 선교사(GMCC 선교회)
간사: 김덕규(씨드교회)
고문: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민중기 목사, 노창수 목사, 신승훈 목사, 김은목 목사

미주 4개 한인 신학교, 약 150억 지원받아 하나님 일꾼 기른다

릴리재단 LSCG 프로젝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월드미션대학교(WM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ITS신학대학원(ITS)신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들은 지난 3월 4일 CPU에서 릴리 공동 프로젝트(LSCG, Large-Scale Collaborative Grants)의 시작을 앞두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릴리재단은 지난해 미국 내 신학교들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 수혜 기관을 모집했으며, 이에 네 개 신학교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선정되었다.

이날 예배는 CPU 김루빈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WMU 임성진 총장 개회 기도와 GMU 이병구 학장의 예배소서 4장 1-6절을 성경 봉독, GMU 이사장이자,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가 ‘연합의 영성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

역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LSCG프로젝트 어드바이저)는 기독교 영성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지점은 연합이라고 강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유지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은 자기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인 신학교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비를 받아 협력하게 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교계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U 이상명 총장은 그랜트



미주 4개 한인 신학교, 릴리재단 Large-Scale Collaborative Grants 프로젝트 감사예배 ©CPU

경과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네 학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온 과정을 소개하며, 협력 관계가 시작 당시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했음을 감사했다. ITS 이승현 총장은 비전 선포를 통해 네 학교의 연합을 통해 차세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비전

을 밝혔다.

각 학교의 주요 역할도 소개했다. GMU는 CBTE(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라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목회 현장에 맞춘 결과 중심의 유연한 커리큘럼을 설계하며, 프로젝트 주관 학교로서 릴리 재단과의 소통, 재정관리 및 보고, 행정 조율을 담

당을 맡았으며 CPU는 학석사(BA/MDiv) 통합 속성 과정 구축을 통해 인재 수급을 활성화하고, 목회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직 프로그램(MBA, 채플린, 의료보조원 등)을 운영하며, 협력 기관들의 전체 활동을 취합해 릴리 재단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WMU는 온라인 교육에 맞춘 영적 성장 도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개 학교 컨소시엄 기금을 관리하며, ITS는 다인종·다언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WMU와 함께 컨소시엄 예산을 관리를 담당했다.

네 학교가 릴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총 지원금은 미화 1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700만 달러는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실행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네 학교가 내년 말까지 100만 달러를 모금할 경우 1대3 Matching 방식으로 3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Gavrilov and Brooks, G&B 로펌 파트너

정직과 전략으로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C.Yong Jake Jeong)

파트너 변호사 / Partner

상법
 노동법
 폭넓고 세밀한 법률서비스 제공

Los Angeles Office
 515 S. Figueroa Street, Suite 1235
 Los Angeles, CA 90071
 P: (213) 528-5500




LA사랑의교회 임직감사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

LA사랑의교회가 지난 1일 주일 제6기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김기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설교는 박현성 목사(LA열린문교회)가 맡아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목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교회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안식처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사업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회 일꾼의 자세에 대해 "교회가 많은 사역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금식하고 봉사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교회 일꾼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LA사랑의교회가 제6기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 LA사랑의교회

또한 "좋은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며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

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시간을 움직이듯, 교회도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을 따라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목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오늘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자리"라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섬김의 자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한다. 그 차이는 봉사와 섬김의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교우와 임직자 서약, 안수 및 공포, 임직패와 꽃다발 증정, 임직자 대표 인사, 축사와 권면 등이 이어졌다.

토마스 멩 기자

한기총 남가주지회, 기자회견 통해 출범 선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출범과 관련해 4일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최창수 목사가 개회 기도에 이어 박종대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종대 목사는 "남가주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사역이 기대된다"며 "본질과 비본질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분별하여 교계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샘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신을 발표했으며, 김영구 목사가 경과보고를 전했다. 또한 박세헌 목사가 향후 주요 사역을 발표한 뒤 한기총 목사의 축도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남가주지회의 주요 사역으로 박세헌 목사는 △신학 부문 △선교 사역 △사회 공익사업 참여 △청소년 리더십 세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구 목사는 "한국

교계 인사 중 북한과 한국에 구급되어 있는 인사들의 안녕을 위해 성명서 등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현재 한기총의 활동을 이어서 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샘신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제26지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사실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거주 상원 제26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차이나타운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폴 김 선교사 “부모의 꿈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

폴 김 선교사(텔로 바이오텍 Business as Mission 디렉터)가 '부모의 눈물, 자녀의 사명'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부모 세대의 기도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녀를 사명자로 세우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부모의 입술에는 ' 지켜 달라'는 기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만 키우겠느냐, 아니면 사명자로 세우겠느냐'고 물으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

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는 이 땅에 파송된 하늘의 대사이다. 자녀는 좋은 직업이나 명문 대학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 부모의 꿈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Entrepreneurs'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는 자녀가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다스리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 재정을 사명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섬기고 있는 텔로 바

이오텍에 대해서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이윤을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향하는 'Business as Mission'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Influencers'로 규정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휩쓸릴까 두려워하지만,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이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되지만, 부모의 믿음도 그대로 전

달된다. 부모가 믿음과 소망, 사랑 위에 설 때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녀는 방향이 아닌 정렬을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세대를 'Kingdom Overcomers'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녀를 향한 선언폴 김 선교사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부모를 향해 그는 "자

녀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사명자로 파송하는 부모가 되라"고 도전했으며,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확장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는 세대 계승과 정체성 회복, 몸과 마음의 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향한 기업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텔로바이오텍 BAM 모임
3월 28일(토) 2:30 PM (예약필수)
문의 : 714-732-8477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40 Shatto Pl, #301., Los Angeles, CA 9002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치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PROGRAM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 · 건강 세미나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제인 공 가정주치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제인 공 JANE KONG M.D.



가정의학 진료

고혈압 | 당뇨 | 각종 성인병 | 호흡기 질환
만성질환 | 예방접종



시니어 전문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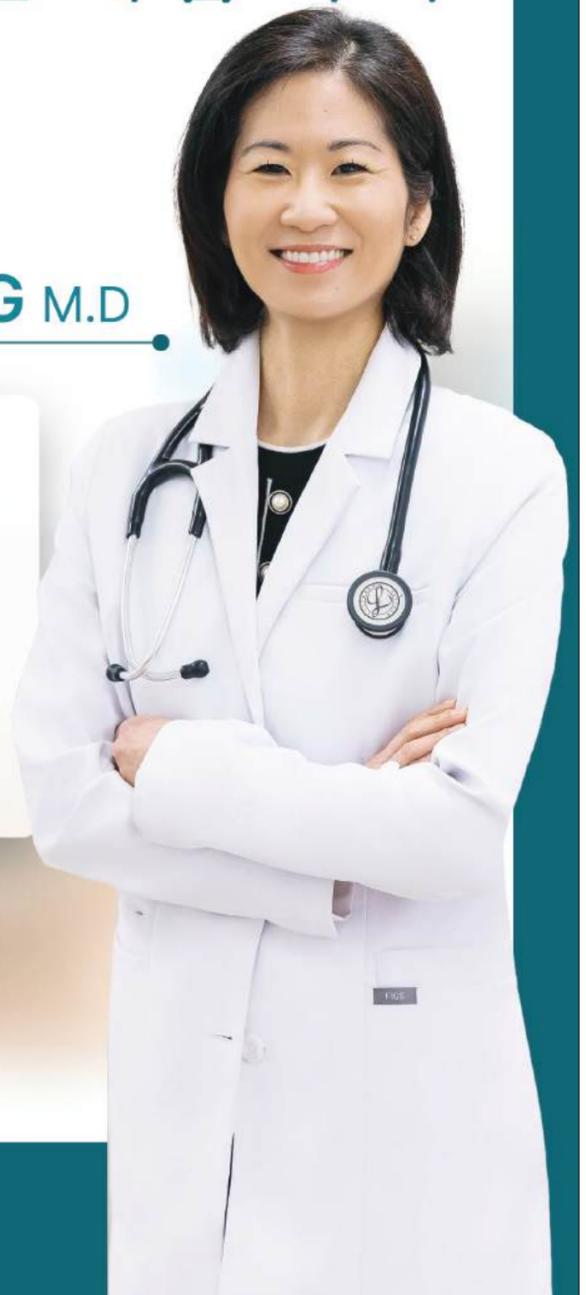
노인성 만성 질환 | 근감소증 | 인지 기능 저하
골다공증 | 식욕부진

KARIS MEDICAL GROUP

7851 Walker St, Ste 103 (714) 345-3023
La Palma, CA 90623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이스라엘 ·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경제적 손해?”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한 ‘기도 큰모임’이 3월 6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당초 이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채드 홀랜드 목사(Chad Holland)의 ‘킹 오브 킹스(King of Kings)’ 팀이 한국을 방문해 이날부터 3일간 이스라엘 세미나와 목회자 간담회 등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홀랜드 목사 일행이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출국길이 막히면서 모임 자체를 취소하려 했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기도 큰모임’으로 전환됐다. 참석하지 못한 인사들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전했다. 채드 목사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조만간 다시 여러분을 뵈 수 있길 바란다”며 “6일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이 핵탄두를 제작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이다. 현재 극단적 급진 이슬람 세력이 이란을 통치하고 있고,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하마스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과 테러 조직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채드 홀랜드 목사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까지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지도자들이 제거되는 등 이란 정권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도 가세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집과 방공호를 오가며 지내고 있



▲채드 홀랜드 목사의 영상 메시지를 청취하고 있다.

다. 공황은 폐쇄됐고, 기업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업이 멈추면서 이스라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소개했다. 기도제목도 공유했다. 그는 “오랜 전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엄청난 상처와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오랜 기간 트라우마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

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계속되길 바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다. 그 부르심을 완벽하게 이루진 못하더라도 초자연적 도우심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루살렘을 위해: 사람들 사이 평화가 계속되길 바란다 △예루살렘 내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해: 14개 언어로 사역을 감당하며 전쟁 가운데 구호센터를 운영하는 킹 오브 킹스 등의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공동체에 속한 군인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전선으로 파병됐고, 그들 중에는 담임목사와 찬양 인도자, 소그룹 리더들도 포함돼 있다 등을 제시했다. 킹 오브 킹스 커뮤니티 예루살렘 담임목사이자 킹 오브 킹스 미니스트리 전체 네트워크 CEO인 채드 홀랜드 목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사역하다, 2014년 가족과 이스라엘로 이민(알리아)해 예루살렘에 정착한 뒤 메시야니즘 리더로서 목회와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메시지를 전한 명령주 대표(KRM)는 “계속된 미사일 공격으로 저희는 방공호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침이 다소 완화됐다. 학교도 온라인 수

업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텔 아비브 서쪽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로 12명이 사망했고, 요격 미사일 파편으로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모두 민간인 피해자이고, 군인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명령주 대표는 “이란 미사일은 대부분 민간인들에게로 떨어지고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제는 터키(튀르키예), 오늘은 아제르바이잔 등 가까운 중동뿐 아니라 아랍 전 지역에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전체와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 수세에 몰리면서 최후의 공격들을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여러 언론 매체들이 전쟁 원인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 등 자신에 대해 집중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대표는 “이란 정권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년 동안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시아파 민병대 후티 반군 등의 전 세계 각종 테러를 지원해 왔고,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등 자유 진영의 테러를 조장한 최대 배후였다”며 “이란은 공공연하게 ‘큰 악마(미국)와 작은 악마(이스라엘)를 지도에서 없애 버리겠다’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기에 핵 개발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이

란을 무장한 이란 이슬람 정권은 자신들이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순교를 가장 큰 영예로 여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편향된 메시지들이 미디어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란 지하교회가 지난 10년간 많이 부흥해 왔고, 이들은 혁명수비대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들의 박해가 사라지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30여 분간의 이스라엘 및 중동 풍의 경배와 찬양 후 인사를 전한 장창근 선교사는 “채드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에는 전화위복이 될 줄 믿는다”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다. 기도할 때임을 알고 나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창근 선교사는 “신약에 나오는 ‘한 새 사람’은 이미 구약에 모델이 있다. 창세기 14장 속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그것”이라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네 왕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굳이 이름을 써 놓았다. 동맹이란 언약을 의미한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맹을 맺는 것처럼 누가 전쟁을 함께할 것인지 묻고 계신다”고 전했다.

장 선교사는 “채드 목사님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연합’으로, 실제로 우리가 다함께 예배하기 위해 원근각처에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떠나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이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이를 위해 오늘 세미나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한인 선교사 은퇴 준비 돕는다, KWMF ·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 제공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 한인세계선교사회(대표회장 송상천, KWMF)와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소장 김남순)는 지난 3일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와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오랜 기간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겪을 수 있는 주거 문제와 노후 생활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선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목회자은퇴준비연구소는 KWMF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와 재정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

담과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선교사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상담과 은퇴 준비 컨설팅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비용 없이 지원된다. KWMF는 회원 선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은퇴 준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는 등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김남순 소장은 “평생 선교 사역에 헌신해 온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3층 연금 체계 마련과 주거 안정 등 실질적인 노후 대비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요,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번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폴킴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플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당신께 맞는 의사, 찾는 병원

모두 SMG에 있습니다

5,500명의 전문 의사와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18개 연계 대형 병원

- UCLA
- 시더스-사이나이
- 할리우드 장로병원
- 세인트 주드
- 세인트 조셉
- 애너하임 리저널
- PIH 굿사마리탄 외

문의전화 _____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정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네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다세대) 예배 오전 9:15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회 온라인 오후 6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자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고대)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1 분당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종교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종교공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사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세례(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세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동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항섭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필월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해외 거주 이란인들 “복음과 종교 자유의 시대 오길”



이란의 한 기독교인이 두 손 높이 성경을 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37년간 이어진 알리 하메네이의 철권 통치가 무너지자,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자국의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란 태생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인권운동가 골드 감마리(Goldie Ghamari)는 국제사회에서 자유 이란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녀는 최근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은 이미 끝났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 것인가”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감마리의 가족은 수십년 전 이란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며 성장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온타리오주 의원으로 선출되며 정치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이란 정권의 억압을 집중적으로 고발한다. 하잡 강제 착용, 표현의 자유 제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체포와 고문 등은 그녀가 국제 무대에서 지적하는 문제다.

감마리는 서방 국가들이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으며, 동시에 이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연대와 행동이 이란 국민의 자유를 앞당길 수 있다”며, 인권

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활동은 해외에서도 위협을 동반한다. 해외 거주 이란인 활동가들은 종종 협박과 위협에 직면한다. 그러나 감마리는 “침묵은 곧 동조”라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혔다.

감마리는 “이란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자유로운 조국 그리며 감격스러운 눈물 흘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란 망명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끄는 사무엘 닐슨(Samuel Nielsen) 목사는 프로테스탄트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고, 20대나 30대에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전 위기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현재 스페인 이란 공동체는 억류된 목사들의 안전과 규제 없는 교회 개척 및 복음 전파를 허용하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신미셀 기자

교회 출석 조사 재 실시 英 기독교 증가 여부 재검증

영국에서 이른바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올해 말 교회 출석 관련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바이블 소사이어티(Bible Society)가 발표한 ‘The Quiet Revival(조용한 부흥)’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유고브의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토대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히고 매달 한 차례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이 2018년 8%에서 2024년 12%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8~24세 청년층의 경우 같은 기간 4%에서 16%로 급증했다. 같은 연령대 여성도 4%에서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18~24세 청년 중 약 3분의 1은 친구의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4분의 1은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했다.

공동 저자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리 애넌 맥알리어 박사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회가 구조적 쇠퇴에 접어들었다는 기존 가정을 뒤집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와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론이 제기됐다. 장기 추세 데이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 사회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보아스(David Voas)는 “이 정도의 성장이 사실이라면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신규 교인이 생겨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적 증거는 명확하다. 교회 출석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자들은 특히 내셔널 센터 포 소셜 리서치(NatCen)가 실시하는 영국 사회태도조사(BSA)를 근거로 든다. 무작위 확률

표본 방식을 사용하는 이 조사는 ‘골드스탠더드’로 평가받는다.

최근 BSA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히고 매달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은 2018년 12%에서 2024년 9%로 감소했다. 청년층 월간 출석률 역시 6~7%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Cen의 수석 연구원인 존 커티스 경은 BBC 인터뷰에서 “연속적이고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에 더 신뢰를 둔다”며 유고브 수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퓨 리서치 센터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영국 기독교 부흥 보도가 충분히 강력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퓨는 특히 ‘옵트인’ 온라인 설문 무작위 표본 가구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퓨 분석에 따르면 영국 노동력조사 자료에서 성인 기독교인 비율은 2018년 54%에서 2025년 여름 44%로 하락했다. 18~34세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8년 37%에서 28% 미만으로 감소했다. 인본주의 단체 휴머니스트 UK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성서공회는 연구 결과를 고수하고 있다.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고품질 유고브 조사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유고브 역시 자체 패널 운영, 신원 확인, 기기 지원 추적, 위치정보 도구 등을 통해 부정 응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흥론 지지자들은 2025년 성경 판매가 급증했다는 업계 자료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기독교 출판사 그룹 SPCK 그룹은 올해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보고했다. 유고브가 올해 말 동일 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조용한 부흥’이 실제 현상인지에 대해 학계와 통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경 기자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



복음주의 지도자들 약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모여 어깨에 손을 얹고 대통령과 미국,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덴 스카비노 백악관 보좌관 X

3월 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열렸다. 이날 기도 모임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안수기도를 했다. 이번 모임은 백악관 신앙사무소(White House Faith Office) 책임자인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Cain) 목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앙 조언자로, 행정부 내에서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기도 모임에는 델러스 제일 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를 비롯해 신앙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회장 랄프 리드(Ralph Reed), 가족연구협회 전 회장 게리 바우어(Gary Bauer) 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는 플로리다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Christ Fellowship Church)의 원로인 톰 멀린스(Tom Mullins) 목사가 인도했다. 멀린스 목사는 기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시기를 구한다. 또한 미국의 군인들과 모든 장병들을 지켜 주시고, 이 나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안전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나라를 이끌어 갈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로 다시 바로 서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멀린스 목사는 “지금과 같은 긴장과 갈등의 시기에 미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위에 서서 지도력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달라”며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용

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소감을 전했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인 네이트 샤프라인(Nate Schatzline)은 자신의 X 계정에 “미국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 부흥과 종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 회의를 동원하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신앙 공동체와 태아, 다음 세대, 그리고 종교 자유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악관 신앙사무소를 이끌며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온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신앙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회장 랄프 리드(Ralph Reed)도 X에 글을 올려 “이란의 테러 정권을 공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에 감사한다”라며 “하나님께서 이란 국민에게 승리와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회의(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NHCLC) 회장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역시 X를 통해 기도회 참석 사실을 전했다. 로드리게스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누렸다”라며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혜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분쟁과 막중한 책임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를 구했다”라며 “최고 지도자에게는 겸손과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준 기자

美 걸프 연안서 대규모 복음집회 145개 교회 참여

미국 멕시코 인접 걸프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복음 전도 집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협회(BGEA)는 ‘걸프 연안 희망 집회(Gulf Coast Celebration of Hope)’ 집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회 145곳과 협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고(故)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의 손자인 윌 그레함(Will Graham) 목사가 3월 21~22일 걸프 연안 콜리시움과 컨벤션 센터(Gulf Coast Coliseum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윌 그레함 목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걸프 연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 중요한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라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걸프 연안 희망 집회’는 3월 21일 오



윌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했다. ©BGEA

후 7시에 시작되며, 음악 사역자 DOE와 Charity Gayle이 찬양을 인도한다.

이틀째이자 마지막 집회는 3월 22일 오후 6시에 열리며, Terrian과 채리티 게이일이 찬양을 맡는다. 두 집회 모두 윌 그레함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로시 L. 프랜시스(Rossie L. Francis) 목사는 “지금 바로 걸프 코스트 희망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적절한 때”라며 “많은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라(홍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g.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GP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30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우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집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대학생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생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필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요절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필일) 새벽 5:30
(월-토) (토/주일) 새벽 6:00
(월-토)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7:30
토요일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7:30
금요성령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회 저녁 7:30(금)
EM(Holy War)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라인)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카데미(미주지역)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원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점심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맘애크림)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인턴십)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i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0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터론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u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j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약해진 서구 교회가 세계 교회에 미치는 영향



리처드 하웰 박사.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리처드 하웰 박사의 기고글인 '서구 기독교는 '약화된 서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모습'(6 ways a weak Western Church hurts the global Church)을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리처드 하웰 박사는 케일럼 인스티튜트(Caleb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총장이다. 그는 1977년에 설립된 하나님의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of God)의 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야기는 단순히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더 시급한 현실은 이것이다. 서구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해체되고 약화되는 현상은 결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겪는 위기는 점이다. 서구 기독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약해질 때 그 영향은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결국 그 결과는 다수 세계(Majority World) 교회의 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미 많은 다수 세계 교회들은 가난, 공동체 간 폭력,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카스트와 민족적 차별,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 가는 공적 영역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바로 한때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선교를 지원하며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세계적 기독교 연대의 약화이다.

다음은 약해진 서구 교회가 세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방식이다.

1. 세계 교회 인프라를 지탱하던 재정적 지원의 약화

지난 200년 동안 서구 교회와 선교 기관들은 현대 선교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구축했다. 신학교, 성경 번역 단체, 출판사, 병원, 학교, 구호 네트워크, 그리고 기독교 미디어 플랫폼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 역사는 완벽하지 않았다. 식민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때로는 복음과 제국주의적 사고가 뒤섞이기도 했다. 선교와 함께 가부장적 태도가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수많은 세대를 교육하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세계 교회가 잃어가는 것은 단순히 재정 지원만이 아니다. 훈련 체계, 학문적 생태계, 정책과 법률 대응 능력,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제도적 경험과 기억이 함께 약화되고 있다. 박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지는 세계에서 이러한 역량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적 옹호의 약화

서구 교회의 영적 쇠퇴는 정치적·도덕적 영향도 가져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종종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세력의 일부였다. 이는 기독교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서구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거나 내부적으로 분열되거나 정치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옹호 활동 역시 약화된다.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다. 박해받는 신자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정부들은 외교적 압력을 덜 느끼게 되며, 언론의 관심도 줄어든다. 결국 억압적인 정권은 종교 박해에 대한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게 된다. 어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겪는 고통은 다른 지역의 큰 교회들이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

3. 서구 교회의 선교 혼란이 세계 교회로 확산된다

서구 교회의 쇠퇴는 단순히 교회 출석을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혼란도 포함한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단기 프로젝트나 브랜드 활동 정도로 축소시켰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전도를 모호한 인도주의 활동으로 대체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보다 문화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모습들은 책, 컨퍼런스, 팟캐스트, 후원 구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교회로 쉽게 전파된다. 그 결과 많은 다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이나 종교 다수주의뿐 아니라 서구에서 수입된 선교 혼란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교회는 종종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분열된다: ▲선포 없는 사회 활동 ▲사랑 없는 전도 ▲구호처럼 단순화된 제자훈련

4. 역선교 선교사들이 지원 부족과 차별을 경험한다

최근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선교의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과 북미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탈기독교 사회에 사는 현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회에도 여전히 증인을 남겨 두신다.

그러나 이러한 역선교 역시 쉬운 길은 아니다. 다수 세계 선교사들은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누렸던 지원 체계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사역한다. 그들은 이민 규제, 인종 차별, 문화적 피로, 그리고 깊은 신앙을 의심하는 서구 사회의 시선을 동시에 마주한다.

또한 그들 역시 다음과 같은 유혹에 직면한다: ▲서구 교회의 공연형 사역 모델을 모방하려는 유혹 ▲숫자로만 성공을 평가하려는 유혹 ▲민족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유혹

역선교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깊은 제자훈련, 문화적 이해, 그리고 거절을 견딜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

5. 서구 신학교의 신앙 이탈이 세계 신학 교육에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많은 다수 세계 지도자들은 서구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서구 학술 출판물에 의존해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계 교회에 큰 유익을 준 훌륭한 학문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서구 신학 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선택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수 세계 교회는 분별을 해야 한다. 복음에 충실한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가르침은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신앙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은 거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수 세계 자체의 신학교와 연구 네트워크, 출판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6. 서구의 분열적 디지털 문화가 세계 교회에 갈라놓는다

마지막으로 잘 논의되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수입되는 분열이다. 서구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그 혼란 역시 세계 교회로 전파된다. 알고리즘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이로비, 나갈랜드, 뉴델리의 교회들도 자신들의 맥락과 전혀 다른 온라인 인물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신뢰 대신 의심 ▲기도 대신 분노 ▲성경 대신 구호. 목회자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갈등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새로운 협력의 길: 공동 회개와 공동 섬김

만약 서구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신앙, 거룩함, 지적 진지함, 선교적 확신 속에서 강하게 서 있었다면 세계 교회가 받는 부담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목소리는 더 강했을 것이고, 선교와 교육 사역에 대한 지원도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다수 세계 교회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경험한다. 내부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억압과 외부에서는 세계 교회의 연대 약화다. 그럼에도 단순한 탄식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서구와 다수 세계 교회 모두가 함께 새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서구 교회는 복음 전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공격적으로 변화하지도 않는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복음을 마케팅이 아닌 증언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 최승연 기자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월드미션대학교(WMU)가 주관하고 기독일보가 후원한 교회사역 세미나가 지난 3월 6일 달라스 영락장로교회(명치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설교, 공동체, 영성, 가정신앙, 정신돌봄, 예배 사역 등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달라스를 중심으로 휴스턴 등 텍사스 각지에서 참가했다. 세미나는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성진 총장은 이민교회가 세대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 놓여 있는 만큼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는 말씀 중심 설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붙드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설교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전하는 영적 사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교자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을 가져야 하며, 성도들의 삶과 현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민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인 만큼 설교가 성도들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목 교수는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그룹은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영적



월드미션대학교가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동체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남종성 교수는 "AI 시대의 영혼 돌봄: 비율의 영성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돌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는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내면은 고립과 영적 공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목회 사역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술이 인간의 영성과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며 교회의 사명은 사람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목회적 돌봄과 영적 동행에 있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수는 신앙 전수의 핵심으로 가정예배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교회 프로그램만으로는 신앙 전수가 완성될 수 없다"며 "가정이야말로 신앙이 실

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작은 신앙 습관이 결국 다음 세대의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약함이나 신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임상 교수는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교회 음악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예배 음악의 본질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교회 음악이 단순한 공연이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동양선교교회-히즈쇼 신앙교육 프로젝트 '다있다'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 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확대된다. 히즈쇼와 동양선교교회는 '미주 한인교회 교육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미주 한인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을 진행하며 약 150개 한인 교회에 VBS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는 올해 이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해 1년 동안 4~5개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교사대학'(오프라인 중심), 4월에는 'KID VBS 프로그램'(온라인 중심), 9월에는 '성경개관'(오프라인 중심), 10월에는 '복음 전도'(온라인 중심)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 사역을 담당하는 미주 한인교회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세미나는 3월 19일(목)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이후 2~4회차 세미나 및 자료 신청 일정은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회차 세미나 '다있다' 세미나 일시: 3월 19일(목) 오후 6시 장소: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 신청 및 문의: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https://omc.org/omcmmission>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9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6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5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 세미나 참석교회 특전

- ✓ 15개교회 선정 후 \$3,000 지원
- ✓ 목회현장 소그룹 노하우 공유
- ✓ 소그룹 리더 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 침체된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실제 목회 현장의 **전략!**
- 지금,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유경재 목사



이수호 목사

강사: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소그룹 중심 목회사역의 실제

강사: 이수호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담임)
말씀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적용 사례

2026.3.23(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 소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대 상 : 담임목사, 목사, 소그룹 리더
- 등록비: 무료, 점심제공, QR 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전화번호 213-434-1170

무료공개세미나



지금 등록하세요!

공동주최: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

강준민 칼럼

침묵 수업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남긴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을 통해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또한 말을 통해 설득하고, 사람을 얻고, 과업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법은 꾸준히 배우야 합니다.

누구나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의 많은 가르침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배우고 싶다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저는 늘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소통에 관한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말의 중요성을 잊고 무심코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며, 예술입니다. 악기 연주자가 반복해서 연습하듯, 말하는 법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침묵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과 소통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많지만,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침묵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라게 여기더라”(막 15:4-5).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마 7:28-29).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에서 무게와 고요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침묵에서 신중함과 분별의 지혜를 배웁니다.

세계 큰 울림을 준 말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려거든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필요 없는 말, 삼가야 할 말을 반복한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지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

은 한 번도 내게 해가 되지 않았다.” 영성가들은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현인들은 침묵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배운 침묵의 지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면의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뒤에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 내면의 불꽃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꽃은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침묵은 내면의 에너지를 지키고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침묵은 경청의 지혜입니다. 말하는 동안 우리의 귀는 닫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은 관심과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며 배운 좋은 교훈을 기록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순간, 뇌는 각성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은 더 깊이 뇌에 새겨집니다. 또한 기록한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내면화되고, 삶이 됩니다. 경청은 지혜를 얻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셋째, 침묵은 고요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정적(靜寂)에 이르는 길입니다. 정적은 고요하여 맑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침묵

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시작할 때 마음의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소음을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소음이 점점 잦아듭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 집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깊이 깨닫습니다. 고요는 통찰을 열어 줍니다. 고요할 때 영감이 임하고, 고요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요할 때 사람의 미소 속에 숨은 슬픔을 보게 됩니다. 말 뒤에 감춰진 숨은 마음을 읽게 됩니다. 고요를 가꾸는 길은 침묵입니다.

넷째, 침묵은 소통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음악의 쉼표와 같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적절한 쉼표에 있습니다. 쉼표가 음악을 살리듯, 침묵은 대화를 살립니다. 침묵은 동양화의 여백과 같습니다. 적절한 여백이 깊이를 더하듯, 침묵은 말의 깊이를 더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할 줄 알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잠 25:11).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알맞은 단어와 ‘꼭’ 알맞은 단어의 차이는 진짜로 엄청난데. 이 차이는 정말로 번갯불(lightning bug)과 번개(lightning)의 차이와 같다.”

침묵 수업을 계속 받으십시오. 침묵을 배울수록 말은 깊어지고, 소통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침묵 수업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유앙겔리온, 복음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황제의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 세계에는 이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아시아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 제국은

황제의 탄생과 통치를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황제를 지칭하던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표현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자 주인으로 인식했고, 모든 기쁜 소식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시대 황제의 복음, 즉 황제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은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황제의 은총으로 하사품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받을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빼앗아 가는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 사람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이 같은 복음의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할 때,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며, 새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선물의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단체 모임, 돌잔치, 팔순, 각종 피로연, 상견례 등 다양한 크기의 12개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성음식, 궁중요리 전문점 www.yongsusanla.com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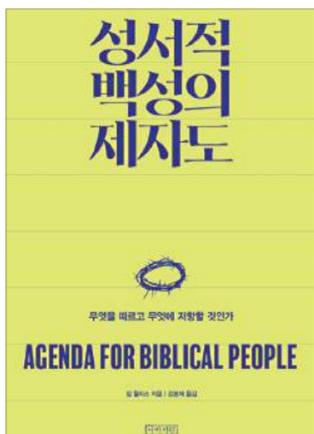
예약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개성 보쌈 김치
판매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리스도인,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왜 '노예 제도' 폐지에 목숨을 걸지 않았는가?



〈성서적 백성의 제자도〉는 짐 월리스가 1976년 쓴 책이다. 월리스는 1948년 플리머스 형제단 가정에서 태어나 보수적 신앙 가운데 성장하다, 대학생이 된 후 온갖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기성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그가 배운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사랑한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트리니티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기성 기독교의 안일함에 계속 실망감을 느껴,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민연합'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포스트 아메리칸'이라는 잡지를 통해 복음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급진적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을 해 왔다. 1975년엔 워싱턴 D.C.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소저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개인과 교회, 사회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으킨 강력한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하고 있다.

월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구원을 순전히 개인적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 개인이 역사 속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63쪽).

그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기독교적 급진주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자신의 삶과 사회적 환경을 하나님 나라의 실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76쪽)"이다.

그는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구원이 오직 개인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만 치중할 때 개인 영성, 삶의 개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사회 정의' 문제로 보수 기독교 교회가 다른 의견으로 충돌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관한 본질적 견해 차이가 보수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돕거나 부조리한 일에 관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서로의 답이 다른 것이다. 케빈 드영은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 사회정의, 살름, 지상명령 이해하기'라는 책에서 교회가 받은 미션(명령)은 오직 하나라고 말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짐 월리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사회 문제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급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종종 그 강력한 목소리는 교회가 단체 활동을 통하여 그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양육한다 해도, 교회 안에 사회 정의와 참여 기회나 사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변질된 교회 또는 기성 사회와 정치 및 제도에 순응하는 교회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월리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자신이 주장하는 급진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두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외친 것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다. 월리스의 의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더 변화된 삶을 추구해 결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사회 개혁의 급진적 모습에 불일치하는 교회를 모두 변질된 혹은 순응하는 교회



시중 말고의 귀를 자르려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린 15세기 프라 안젤리코의 성화

로 봐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맞는가'이다.

항상 이런 저항은 사회에 무관심하고 자신만 돌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취급받기 쉽다. 하지만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부한 자들과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싸워야 할 절대 악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정의와 사랑을 말하는 법은 없는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사회 정의에 얼마나 급진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것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왜 충분하지 않은가?'

월리스의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 또는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사회적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월리스를 통하여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책이 주는 유익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유익은 독자가 비판적으로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게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옆에 펴고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사사백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5



God is within her,
She will not fall;
God will help her
at break of day.
PSALMS 46:5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2026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KPCA 50주년 희년 총회 준비 본격화 “회복 넘어 사명으로” 교단 미래 조망

해외한인장로회(회장 김경수 목사, 이하 KP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 총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단은 총회 기간 동안 기념 논문 발표회와 50년사 발간, 희년 집회 등을 통해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 사명을 함께 조망할 계획이다.

KPCA는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제50주년 희년 총회를 개최한다.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및 공향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끝에 장소가 결정됐다. 총회에는 각 노회 총대들뿐 아니라 여선교회연합회와 사모회 등 교단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여러 기념 사업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 교단은 50년사 발간, 기념 논문집 출판, 희년 집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희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KPCA는 1976년 미주 한인 교회의 연합 속에서 출범했다. 당시 서부의 서노회, 중부의 시카고노회, 동부의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동노회 등 세 노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이 창립됐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올해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는 교단 창립 초기 동



KPCA가 50주년 희년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 단체 기념촬영. ©KPCA

부 지역의 뿌리를 다시 돌아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이번 총회는 지난 반세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난 50년을 정리한 ‘KPCA 50년사’가 발간된다. 이와 함께 교단의 역사와 신학, 선교적 과제를 조망하는 50주년 기념 논문집도 총회 기간에 총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논문집에는 교단의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포함됐다. 주요 주제로는 △총회의 50년 역사와 인물사 △통계로 보

는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현황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단의 역할 △KPCA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교육의 미래 △이민교회의 다세대 통합예배 △디아스포라 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 △글로벌 선교 △초교령화 시대 교회의 사명 △여성 리더십 개발 △인공지능 시대의 신학적 과제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고찰’과 ‘글로벌 선교’ 두 논문은 총회 기간 중 발표되는 학술 발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둘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희년대회 겸 기념 집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 5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감사 예배와 기념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5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중훈 목사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준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50년사 편찬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전 총회장 박태겸 목사가 맡아주셔서, 기념 논문집 발간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CPU) 이상명 총장이 위원장으로 담당해주셨다”며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감당해 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과정과 관련해 “전체 구조를 세운 뒤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일하도록 맡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됐다”며 “각 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우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번 희년 총회의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희년의 핵심은 회복”이라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총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총회 주제도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민교회의 미래와 관련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는 교회론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1세와 2세가 함께 연결되며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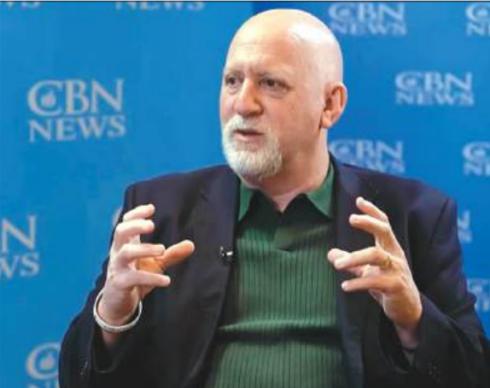
김대원 기자

유대인 출신 목회자 “구약의 모든 단어가 결국 예수님 가리켜”

에드 그리핀하겐(Ed Griffenhagen) 목사가 최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히브리어 365 단어’라는 목상집을 출간했다. 그는 최근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자신의 신앙 여정을 들려줬다.

그리핀하겐 목사는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며 성경을 접하지 못했지만, 결혼 13년차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갈망으로 이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경을 반박하려는 마음이었으나, 구약을 완독한 뒤 신약까지 읽으며 점차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조쉬 맥도웰과 리 스트로벨의 저서를 접한 것도 큰 영향을 줬다. 결국 2001년 1월 17일, 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그는 이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구약의 언어와 단어들



▲에드 그리핀하겐 목사. ©유튜브/CBN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세기 첫 구절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의 고백은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그리핀하겐 목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에는 성령을 잘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말씀, 예레미야 31장과 이사야 53장의 새 언약과 메시아 예언 등을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가 책에서 다룬 히브리어 단어들은 성경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카포레트’(속

죄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뜻한다. 헬라어로 번역될 때 ‘hilastēriō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라고 선포한다. 그리핀하겐 목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속죄소에서 만났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살롬’이라는 단어도 새롭게 해석된다. 흔히 번영이나 번성으로 번역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문맥을 보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체, 복지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알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핀하겐 목사는 책을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잘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더 많이 눈물 흘리고, 자신의 이야기와 복음을 나누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단어 하나를 함께 연구하며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에드 그리핀하겐 목사는 미국 조지아주 미들랜드에 위치한 처치 오브 더 트레일의 담임목사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며, ‘M2540’이라는 사역을 통해 노숙자와 빈곤층, 중독자 등을 돕고 있다.

이윤준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내가 죽으면 한푼도 남는게 없는 어뉴이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황입니다. 문선영씨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어뉴이티 광고가 하도 많아서, 부쩍 어뉴이티에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문선영씨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 다음 계속 문선영씨 유튜브가 나와서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잘 보고 있고, 또 챗GPT를 통해서 공부도 나름 좀 했더니 어뉴이티가 매우 유용한 플랜이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치는 친구들이 은퇴를 해서 어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한 친구는 어뉴이티를 통해서 이미 돈을 받고 있으니까 세상 편하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친구는 나 죽으면 남겨주는게 하나도 없고 내 원금도 없어지는데 그게 뭐가 좋냐고 저에게 따로 전화까지 하면서 어뉴이티 가입하지 말라고 아주 극성입니다.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제 와이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지 정말 걱정입니다. 말 그대로 저랑 와이프 소설이 합쳐서 3천불 정도 되고, 어뉴이티로 만약 3천불 정도가 나와서 저희 생활비가 6천불이면, 제가 사망하고 나면 와이프는 혼자 2천불 정도를 받게 될 것 같고, 어뉴이티가 하나도 안나온다고 하면 와이프 혼자 2천불로 어떻게 살니까. 딱딱 딱딱 나오는 어뉴이티가 좋기는 한데 내가 오래 살았을 때 오랫동안 많이 찾아 쓰는거지, 내가 일찍 사망하면 와이프에게 주는 혜택도 없고 그냥 원금만 찾아 쓰고 죽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을 하자니 또 와이프가 일찍 죽으면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나머지를 살게 되나 걱정이요.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 없이 정말 원금만 찾아 쓰니까 그것도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일찍 죽을 것을 대비해서 좀 나오는 어뉴이티는 없을까요? 문선영씨 유튜브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황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내가 사망하고서 딱딱 딱딱 나오던 어뉴이티 연금이 만약 안나오면 와이프는 어떻게 되느냐 인데요, 다행히도 대안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와이프 두 분의 이름으로 어뉴이티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조인트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혼자서 가입하시는 것과 가입절차는 똑같습니다. 만약 두 분 중 한분이 사망해도 남은 계시는 분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에 따라 이런 조인트 어뉴이티를 가입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인트 어뉴이티는 내가 통털 상황에 처할 지, 내 와이프가 통털 상황에 처할 지 정말 알수가 없는데 이것도 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리고 나이 차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분의 이름으로 들어가 75%~8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전체 자산 상황에 따라 그리고 두 분의 건강

통털 케어 상황에 보다 많은 인컴 혜택을 보고 싶으시면 이 조인트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로만 아니라, 직접 만나뵙고 황선생님의 상황을 좀 더 들려주시고 자제하게 맞춤형 플랜이 나오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지요.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재정상담과 은퇴 플랜은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하시면 됩니다. 어뉴이티를 비롯한 은퇴 플랜은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3월 28일** (토) 오후 2:30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Business as Mission 에 관심있는 모든 분과 차세대 창업가
- 신청마감 : 3월 25일(수) 마감
- 신청 : 폴 킴 714-732-8477 (문자 혹은 전화 신청)
Joshua Kim 718-290-4739 (차세대 영어권 담당)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octor 초청 세미나

- 기간 : 3월 14일(토)~15일(일)
- 일시 : 14일(토) Buena Park 9:45am
Laguna Wood 3:00pm
15일(일) 가든스위트 호텔 2:45pm
- 예약 필수 : 714-732-8477

자문위원

김재종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

기독일보



지령 1000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

기도로 동행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1월 23일 복음의 첫 문장을 기록했던 기독일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독자 여러분의 사랑 속에 마침내 지령 1,0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8,000여 일 동안 기독일보의 걸을 지켜주신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영적으로 연결하고 다시 세우는 도구로 기독일보를 사용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독일보는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 보다 가장 신뢰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섬기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문과 'TV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미디어 시대 속에서도 성도님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독일보 임직원 일동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 전수에 마음을 쏟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독일보가 있기까지 기도로 동행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00호를 향한 여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대표 이인규 목사 외 임직원 일동

감람산을 물고 온 소망의 1,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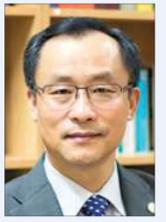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언론 되기를”

할렐루야!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령 1,000호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기독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며 미주 한인 이민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교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온 기독일보의 헌신적인 사역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며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일보가 지난 세월 동안 보여 준 꾸준한 사명감과 헌신은 미주 한인교회 공동체에 매우 귀한 자산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목회의 현장에서 기독일보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접해 왔습니다. 시대적 이슈와 신앙 에세이, 특집 기사와 신학적 주제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간증에 이르기까지 기독일보가 전해 준 이야기들은 목회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통찰을 주었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 중심의 삶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방주에서 세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내보낸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심판 이후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

는 징표였습니다.
저는 기독일보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며,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기독 언론으로 계속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독일보의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언론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은목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예언자적 사명으로 시대를 비추는 언론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충성되이 지켜온 세월이기에, 생각할수록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다양한 이슈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언론은 진실되고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독 언론은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지니고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독교인의 신앙 본질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일보가 팬데믹의 상흔 속에서 시작된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작은 교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통로 역할을 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대를 잇는 ‘성경필사 장학금’ 사역을 통해 귀중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앞장서 온 것 또한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다양성을 요구받는 시대 속에서, 기독 언론기관으로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의 선한 능력으로 끈끈하게 잘 이겨내 시기를 소원합니다. 남가주를 넘어 텍사스까지 ‘위 브릿지’ 사역의 지경이 넓혀 가고 있는 소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기도하는 언론사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론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령 1,000호, 신실한 사명의 발걸음”

기독일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한인 교계에서 기독 언론기관으로서 사명과 방향을 정하고

한결같은 복음의 길, 기독일보 1,000호를 축하하며



최국현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기독일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걸어온 기독일보의 발걸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기독일보를 통해 전해진 한 줄의 교계 소식과 한 편의 은혜로운 기사가 목회 현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기독일보의 기사를 통해 교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교회들을 연결하는 섬김과 선교 현장의 소식은 저의 설

교와 교회 금요기도회에 그대로 응용될 만큼 살아 있는 자료였습니다. 어느 날 급히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기사 끝에 담긴 현장 이야기가 마음을 붙들어 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과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교회와 세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민 교회와 지역 사회를 잇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살람!

이민 교회와 함께한 기독일보



김영일 목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기독일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민 사회 속에서 문서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전해 온 헌신의 발자취라 믿습니다.
그동안 기독일보는 미주 한인 사회와 교회 가운데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적 시

각을 제시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통찰을 전해 왔습니다. 특히 We Bridge 사역과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온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령 1,000호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이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더욱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GM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학위과정 안내 DEGREE PROGRAMS OVERVIEW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입학 절차 ADMISSIONS PROCESS



입학 문의 ADMISSIONS CONTACT

-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 ✉ 이메일: admissions@gm.edu
- 🌐 웹사이트: www.gm.edu

학생 혜택 STUDENT BENEFITS

- 유학생 1-20 장학금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 온라인 수업 등록금 할인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교육 인가 기관 ACCREDITING AGENCY



GM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000호, 새로운 사명의 시작

기독일보가 지령 1,000호를 발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이정표를 함께 세워 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한 호, 한 호 역사를 기록해 온 기독일보 임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창간 이후 기독일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쉽지 않은 언론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와 세상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하

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서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의 기준이 흐려지고 가치의 혼란이 깊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복음의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일보가 지난 1,000호의 여정 속에서 보여준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 '기준'을 지켜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복음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진리를 전하는 언론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기독일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독자 여러분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령 1,000호는 결코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기독일보는 더욱 분명한 복음적 가치 위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진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독교 언론으로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와 세계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으로 시대를 밝히는 기독교언론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2,000호를 향한 걸음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폴 김 목사
기독일보 이사장

진리와 사랑 있는 1,000개의 징검다리



이상명 총장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2004년 첫 성찰의 발걸음을 내딛던 이후 22년, 기독일보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교계의 명맥을 잇는 기록한 기록의 여정이었습니다. 미주 지역 5,000여 한인 교회의 소식을 갈무리하며 교계의 숨결을 가감 없이 담아냈고,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며 연합과 화해의 장을 열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복음의 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특히 팬데믹의 거센 풍랑 속에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수많은 소형 교회들이 존립의 기로에 섰을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때 기독일보의 대표적 사역인 '위브릿지(We Bridge)'를 통해 전해진 격

려와 실제적인 지원은 절망의 심연을 건너는 견고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줄어든 성도 수와 텅 빈 의자 사이에서 눈물로 제단을 지키던 목회자들에게 그 손길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앙적 연대의 확증이었습니

다. 또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정성껏 써 내려간 다음 세대의 필사 노트는 흘러진 이민 공동체를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송고하고도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기독일보는 차가운 비판에 매몰되기보다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 왔습니

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교회와 성도를 잇는 영적 소통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TV 기독일보와 C-WOW(Christian World on Watch) 사역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변함없이 선포하며 미디어 선교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의 위로자이자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해 온 이 1,000호의 여정은, 이 인구 대표와 스테프들이 묵묵히 쏟아온 땀방울이 독자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만나 이루어 낸 값진 결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온 그들의

성실한 수고가 있었기에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걷는 오늘의 기독일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000호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록을 쌓아 올린 시간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길어 올린 사랑의 대서사시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찬란한 토대 위에서 다문화 사회와 차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의 공공성이 더욱 힘있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통해 신뢰받는 언론으로



김종호 목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연합선교교회

진리의 파수꾼, 복음의 메아리

기독일보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민 사회 속에서 묵묵히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온 기독일보의 발자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독일보가 보여주는 시사에 대한 기민한 대응에 큰 인상을 받곤 합니다.

최근에 "美-이스라엘 이란 공습, 신앙적 해석과 영적 서사로 본 의미"와 같이 복잡한 시국에 대한 보수 신앙적 관점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런 시도야말로 기독일

보가 크리스천 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든 내용에 개인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도 덕분에 독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을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고단한 이민자의 삶에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더욱 우뚝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수호하며 희망 전하는 통로



국운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대의 영적 성장과 신앙 전수를 책임지고, 위 브릿지 사역으로 개척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온 귀한 통로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이인규 목사님과 기독일보 임직원 일동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수고 덕분에 우리 곁에 기독일보라는 훌륭한 매체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문서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기독일보의 앞날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위상과 동포사회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일보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os Angeles

진리와 공공성을 붙들고 걸어온 발걸음의 결실



임성진 총장
웰스미션대학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목소리”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독일보는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대표적 기독 언론으로서, 교계 소식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는 폭넓은 소식을 전하며, 그 흐름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성찰하도록 이끌어 온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

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일보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독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령 1,000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진리와 공공성을 함께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온 발걸음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와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복음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미주 한인 사회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언론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주의 양심의 목소리를 향하여



류종길 목사
미주사중복음연구소장

서도 흔들림 없이 기독 언론의 본분을 지켜온 기독일보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의 모범적인 기독 언론인 Christianity Today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이루어 온 뜻깊은 발자취를 떠올리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적 담론을 형성하고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 온 점에서 기독일보 역시 귀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기독일보가 Christianity Today와 같은 “복음주의 양심의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더욱 굳게 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며 교회와 사회를 잇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걸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기독일보는 일관되게 복음의 관점으로 시대를 조명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진리의 등불로 밝힌 22년, 사랑의 가교로 세울 천년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미주 기독일보와 함께해 온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주 기독일보가 창간 22주년을 맞이하고 지령 1,000호 발행이라는 뜻깊은 성취를 이루었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민 목회의 현장에서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령 1,000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기독 언론의 길을 걸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자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는 지난 시간 동안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시대를 분별하는 기독교 정론지로서 그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목소리를 내며 미주 한인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독일보가 추진해 온 사역들은 이민 한인 교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위브릿지(We Bridge) 프로젝트'는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코이노니아(Koinonia)'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풍족한 교

회와 연약한 교회를 신앙의 끈으로 연결하여 미자립 교회를 일으켜 세운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상생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거룩한 동행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고민이 담긴 '성경 필사 이벤트'는 우리 2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명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말씀을 써 내려가며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게 한 것은 미래 세대를 하

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영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령 1,000호를 기점으로 미주 기독일보가 써 내려갈 새로운 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 래 왔듯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리를 향한 서슬 퍼런 필치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미주 기독일보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 김 총장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성경적 통찰과 신학적 지혜를 제시하는 건설적 정론지로 서기를



박성진 학장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아시아부

기독일보의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발행 횟수를 넘어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걸어온 기독 언론의 신실한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론(正論)의 길을 걸어온 기독일보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서 있

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양적 성장의 열매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내적 영성과 공동체적 신뢰의 문제라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탈교회 현상이 확산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신앙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성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는 지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깊은 부르심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운 갱신을 이루셨음을 증언합니다. 종교개혁과 부흥운동,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모두 말씀이 새롭게 선포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독일보는 교계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교회와 사회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적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위기를 넘어설 성경적 통찰과 신학적 지혜를 제시하는 건설적 정론지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1,000호 발행을 맞아 기독일보 임직원과 후원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1,000호의 여정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담대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회장 박승목

522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LA북부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North Los Angeles



교회와 새언약 공동체 건설에 매진하는 신문이 되기를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전)

먼저 지령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이겨 낸 편집부 여러분의 수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일보가 코비드 상황 속에서 개척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를 지켜 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너무나 감동적인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에 구제와 선교 헌금을 전하던 초대교회의 사건처럼 너무나 소중한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한 형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신문사가 큰 교단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보여 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과 협력자들의 고귀한 물질적 참여가 이 사역을 지속하게 만들어 나갈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공동체라는 히브리서의 교훈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 가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분 한 몸에 결합된 지체라

야만 새사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들은 세례 요한까지요, 주님 예수께서는 새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선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일에 문서 선교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령 1,000호의 의미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퍼내고 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가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거짓된 행보를 물리치는데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 시

옹비하는 기독일보가 되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살리는 소식으로 지면을 채우려 밝히려는 솔한 밤들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교회의 대변자가 되고 성도의 위로자가 되고자 몰아선 거친 숨결

거짓이 가득한 세상 불의가 활보하는 땅에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밝히려 힘차게 달려온 22년, 8천 예수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묵묵히 활자를 토해냈다.

비바람 맞으며 뜨거운 햇볕 받고 나날이 자라 아~ 1000호를 빚었구나

22개의 성상에 1000개의 깃발을 세웠으니 청년의 기운으로 옹비하는 기독일보가 되라!

진리 가득한 소식으로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품은 기독일보가 되라

세련됨보다 공의를, 인기보다 진실을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그동안 변화무쌍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온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호에서 시작해 100호, 그리고 1,000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 신문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 뉴스 전달을 넘어 교회와 시대 사이를 잇는 영적 공론장의 사명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저 사실만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통찰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독일보의 주된 역할과 가치는 복음적 진리와 균형 잡힌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었음을 많은 구독자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련됨보다는 공의를, 인기보다는 진실을 지향해 온 기독일보의 발자취가 오늘 1,000호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참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기독일보는 진리의 내용을 담아내는 통로이자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0호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소중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의롭고 진실된 1,100호, 2,000호로 나아가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다른 뉴스 매체들과 차별화되는 기독일보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동안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기독일보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사역할 때 동행하였습니다



민중기 목사
KCMUSA 이사장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열정을 다한 사역”

지령 1,000호를 맞이하여 축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자 매체의 존립이 쉽지 않은 이민 사회의 상황에서 이런 성과이기에 더욱 존귀합니다.

미주 사회의 기독교 정론지로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

민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동안 혼신을 다해 노력하신 사장님과 모든 직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지의 기자들은 언제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사역할 때 동행하였습니다. 늘 현장에 충실한 기자들이 기사를 손이 아닌 말로 쓰는 사람처럼 참여하였습니다. 더구나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열정으로 행했습니다.

세찬 변화와 가치관이 침식되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견실한 신학적 기초와 굳건한 복음적 활동을 통해 무궁한 발전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문서와 온라인을 통한 전방위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니 잘하셨습니다.

교회의 소망을 전하는 신문사와 직원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구름기둥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김귀보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 GT Youth 예배 오전 11시
-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2400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Tel : 972-904-3509

www.thegreattree.org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가든스위트호텔

GARDEN SUITE HOTEL

목회자 분들을 위한
세미나 & 연회
환영합니다



GARDEN SUITE HOTEL

목회자 및 교회 단체 특별 상담

213-383-0000

banquet@gardensuitehotel.c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신실함이 만들어 낸 하나님의 이야기

기독일보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신문의 1,000호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통해 써 내려가신 신실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성실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기독일보의 여정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표이신 이인규 목사님의 신실함과 진정성 있는 성품입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 속에 흐르는 그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은 단지 한 기관을 이

끄는 리더십을 넘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심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십시오.”(시편 40:11)

이 말씀처럼 목사님의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곁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오신 사모님의 깊은 영성과 헌신, 그리고 기독일보를 섬기는 모든 스테프들의 묵묵한 성실함 또한 늘 감동

으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땀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1,000호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위브릿지(We Bridge) 사역을 통해 보여 준 영적 리더십을 깊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눈물로 시작한 그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처받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다시 일시켜 세우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흘린 그 눈물과 기도의 여정은 분명 미주 교회의 역사 속에 기억될 영적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기독일보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언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1,000호를 넘어 앞으로의 기독일보가 더 많은 교회들을 연결하고 더 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선교적 플랫폼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귀한 사역 위에 앞으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일보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씨니 김 목사
LA세티교회

진리를 밝히는 등불, 기독일보 지령 1,000호



한현중 목사
LA장로교회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1,000호라는 뜻깊은 이정표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혼란과 거짓된 가치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기독 언론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진리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일보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며 이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서 이민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으로 사명을 감당해 온 기독일보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경적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통로로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령 1,000호의 기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진리를 전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독일보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세운 1,000호의 금자탑



정인호 목사
LA 예수마을교회

현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보'와 '진실'이라는 두 기둥을 붙들고 1,000호를 지킨 기독일보의 생명력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기독일보는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을 넘어 교회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독자들과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돕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명을 위해 수고해 오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올바른과 따뜻한 이야기들로 기독교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일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00호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또 다른 1,000호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진리가 혼돈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기독일보가 올곧은 하늘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모든 독자들에게 희망과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 언론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기독일보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독일보 임직원들과 독자분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병, 시대의 나침반



박일서 목사
가나안교회

기독일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침병이자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신실한 1,000번의 걸음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위브릿지(We Bridge) 사역에 동참하며 기독일보를 '언론' 이상의 '사역의 동반자'로 만나게 된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위태로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임을 깨닫게 해주어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어깨동무가 텍사스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에 참 기쁩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어깨

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합니다.

어려운 언론 생태계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헌신하시는 이인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애정이 오늘의 귀한 열매로 맺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난 1,000번의 붓끝이 그려 온 무늬가 곧 복음이었던,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도 기독일보가 언론의 사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고귀한 복음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일보의 앞날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가 어느덧 1,000호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기독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이기(利器)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세상은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손안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진실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도전받는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LA예수마을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30
- 수요일예배 오전 10: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 청지기모임 오전 8:30(토)
-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30



정인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01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364-0515

연합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45
- EM Youth & Preschool Sunday Worship 주일 오전 10:45
- 수, 금, 금요일 저녁 기도회 수, 금 오후 8:00
- 토요일 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 목장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담임 김중호 목사

주소 및 전화

11145 Morrison St, North Hollywood, CA 91601
T. (818)985-0121

복음의 소식을 전해온 1,000호의 여정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미주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호, 한 호 쌓여온 시간 속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

은 시대 속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온 귀한 여정입니다.

신문 한 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취재하는 손길, 글을 다듬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모여 한 호의 신문이 완성됩니다. 1,000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횡수가 아니라, 그동안 흘려보낸 땀과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기독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신앙의 가치를 나누

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은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1,000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미주 기독일보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목소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2,000호를 향한 길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주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를 만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디어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인격을 가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위브릿지(We Bridge)'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과 부족한 교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축복을 나누게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LA 지역에서 50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역에서 같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차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겠지요.

이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재정적 유무상통 이상입니다.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운 목회자들을 모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며 목회의 유용한 경험과 방식을 주고받는 모임입니다. 저도 두 곳에 모두 한두 시간을 맡아 섬겼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지 실감했습니다.

기독일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독일보를 만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며 하시는 일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의 1,000회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독일보에 대하여 갖는 특별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와 하는 일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사명은 정보나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가급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냉철한 보도를 선호합니다. 미디어가 비인격적일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일보는 단순한 미

영적 파수꾼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 제시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문서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독일보가 1,000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첫 호를 발간한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일보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마서 10:15)로 아름답게 쓰임 받아 왔습니다. 그 귀한 헌신과 사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독일보의 큰 장점은 이민교회의 로컬 뉴스를 충실히 다루면서 동시에 미국 주류 교계와 국제 소식을 폭넓게 전한다는 점이라 생

각합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한 영혼을 섬기는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기 쉬운데, 기독일보의 보도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이민교회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건강한 영성과 균형 잡힌 시각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1,000호 발간, 하나님이 붙드신 시간의 증거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시간, 기독일보 1,000호

참 아름다운 미디어, 기독일보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기독일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품고 한결같이 섬겨 오신 모든 기독일보의 사역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기독일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인 교회와 성도, 한인 동포와 사회에 복된 소식과 바른 방향을 전하는 믿음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기독일보는 정론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시각과 다양

한 소식을 전해 왔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됩니다.

기독일보의 지령 1,000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붙들여 오신 시간의 증거이며, 장차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여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인규 목사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물적·인적 자원을 풍성히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더욱 널리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지령 1,000호 발행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교회와 사회에 진실 전하는 통로



이원준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을 전해 주신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없는 정보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정보가 없는 진실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진리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기독일보는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진실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인 교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넓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독일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계속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일보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소식과 균형 잡힌 시각



담임목사 김지훈

동양선교교회 예배안내

주일 예배 안내

1부예배 오전 7시30분 / 본당
 2부예배 오전 9시30분 / 본당
 3부예배 오전 11시 30분 / 본당
 4부예배(젊은이 예배) 오후 1시30분 / 비전센터

주일학교

OMC주일학교 오전 11시30분 / 교육관 1층
 OMC중고등부 오전 11시30분 / 비전센터
 OMC사랑부 오전 11시30분 / 교육관 427호

기도회 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 본당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시10분 / 본당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동양선교교회
온라인 바로가기



동양선교교회
온라인 바로가기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주소 |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전화 | 323-466-1234 홈페이지 | om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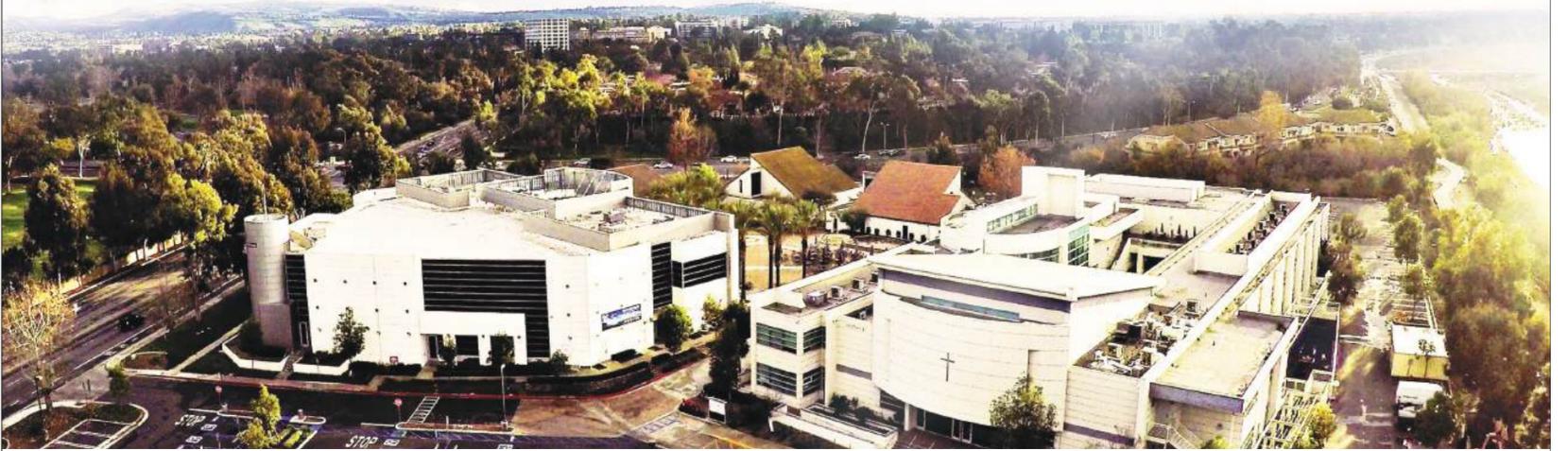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험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일 예배: 매주 오후 7시 30분 / 본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나성영락교회 예배시간 Worship Schedule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청년 오후 1시 30분

특수부 예배 오전 11시

E.M(영어예배) 1st 9:00AM
2nd 11:00AM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온교우 토요기도회 (토) 오전 6시

능력의 수요 강해 (수) 오전 10시

교육부 예배 오전 11시

• 신생아부 • 영아부 • 유아부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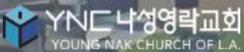
YN한국학교 (주일) 오후 1시
(토) 오전 9시 30분

AWANA (주일) 오후 2시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20
26

견고한 시작, 밝아오는 새 날

A Mighty Beginning, A Radiant New Day (이사야 60:21-22)

기독교일보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소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해 주신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없는 정보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정보가 없는 진실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진리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일보는 교회와 문화의 사이에서 진실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인 교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넓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일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우고 하나님나라를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계속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원준 목사 | 남가주사랑의교회 Senior Pastor Elect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5분
 - 2부 오전 9시 5분
 - 3부 오전 11시 5분
 -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 YES 청년부(본당)
한어대학부(KDC Hyssop Hall)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10분
 - 2부 오전 11시 10분
-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org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원준 목사
Sa-Rang Community Church Rev. Matthew W. Lee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 E-Mail: office@sarang.com
 ■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 563-2422
 ■ 킹덤블레스센터/KBC: 1126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www.sarang.com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확장하는 기독일보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0회라는 걸음을 꾸준히 이어 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언론의 성취를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서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귀한 열매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때로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지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은 누군가 기록하고 나누지 않으면 쉽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일보가 감당해 온 문

서 사역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를 서로 나누게 하는 귀한 통로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달라스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통해 기독일보 사역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폭설이 내려 모든 교통과 일정들이 멈춘 기간이었지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기독일보를 섬기시는 분들이 보여 준 헌신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다. 단순히 기사를 통해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그 발걸음들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독일보 사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의 헌신은 오늘의 1,000호를 가능하게 한 귀한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온 시간들이 모여져 오늘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1,000호 발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

나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욱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귀한 문서 사역을 통해 교회들이 서로 격려를 받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복음 안에서 더욱 복되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일보의 1,000호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통로로 계속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홍장표 목사
달라스 수정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영적 플랫폼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년은 쏟아지는 정보와 급변하는 혼돈의 사회를 마주하면서도 교민 사회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와 바른 신학적 관점을 전하며 지령 1,000호라는 귀한 결실을 맺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년 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 행사가 영락교회에서 있을 때 단상에서 울먹이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누구도 쉽게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걸으며 기독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 20년을 한결같이 매진해 오신 목사님의 주



백종근 목사
비버튼 한인 장로교회

육같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흘린 눈물만큼 그동안 목회 현장과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기독일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를 통해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사가 전개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성경 필사 사역'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깨우는 귀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1,000호를 맞는 기독일보가 능동적인 추진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의 청년들에게 까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브릿지(We Bridge) 프로젝트' 역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위해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운동으로, 교민 사회와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굳건한 사랑의 연대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 더욱 넓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가운데 교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 언론은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기보다 말

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아픈 상처도 정직하게 비추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일보는 누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더욱 굳게 서주시길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복음적 세계관을 창의적으로 전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다음 세대를 깨우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야수의 비판이 아닌 목회의 손길 가진 언론

미주 기독일보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언론이 비슷하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신속하게 전하는 것이 그 기능이겠지만, 기독일보는 따뜻한 목회적 손길을 느끼게 하는 기독 언론입니다. 남의 흠을 야수와 같이 물어뜯는 언론 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생명 회복을 앞세우는 언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도질하는 처형이 아닌, 회복을 염두에 둔 수술과 같은 기사들이며 회개와 회복, 용서와 화해를 통한 기사 이후의 씨름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언론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1,000회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남이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기독일보를 응원합니다. 모든 팩트에는 해석이라는 전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팩트의 전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은 전달자의 마음을 글을 통해 읽으며, 기쁨의 소식을 통해 소망을 품고 슬픈 소식을 통해 아픔과 회개와 회복을 기도하게 하는 기독일보의 2,000회, 아니 만 회 그 이상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독 언론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외롭게 이끌고 계시는 이인규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기독일보를 접하는 미래의 독자들에게 소망의 열매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왔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기독일보는 교계와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신앙의 대화를 이어가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기독일보와 함께 교회와 목회 현장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하며, 교회와 세상을 잇는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창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눈



김귀보 목사
달라스 르누무교회

가져오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기독일보를 응원합니다. 모든 팩트에는 해석이라는 전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팩트의 전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은 전달자의 마음을 글을 통해 읽으며, 기쁨의 소식을 통해 소망을 품고 슬픈 소식을 통해 아픔과 회개와 회복을 기도하게 하는 기독일보의 2,000회, 아니 만 회 그 이상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독 언론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외롭게 이끌고 계시는 이인규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기독일보를 접하는 미래의 독자들에게 소망의 열매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금요찬양 오후 8:00





W.O.R.L.D. MINISTRY SEMINAR

미주 제2회

W.O.R.L.D.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26년 5월 4일(월) - 7일(목)

1차 신청: 3월 21일(토) 까지

일시 2026년 5월 4일(월) - 7일(목) * 목요일 성령집회에배 필수참여
장소 달라스 세미한교회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강사 최병락 목사, 이은상 목사, 월드 담당 사역자
대상 만 55세 이하 담임목회자 30명 (회비 \$200)



신청링크

- 큐알코드 & 세미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세미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세미나 참석 특전: 회원 교회 신청 자격을 드립니다.



월드사역 연구소장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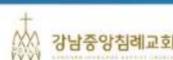


월드사역 미주소장
세미한교회 담임

월드사역연구소는 21세기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Think Tank로서 교회 사역의 필수적인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복음 전파, 제자 재생산 사역을 W.O.R.L.D. Ministry로 구체화 하여 준비된 매뉴얼과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서나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개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복음 전파와 제자 재생산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O.R.L.D. Ministry로 함께 나아갈 교회와 목회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W Worship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 Oikos Church 기도하는 소그룹 교회
R Reaching-Out Church 나누고 돕는 교회
L Life-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주최



월드사역연구소 소개



세미한교회 홈페이지

광야의 소리 되어 1,000호까지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1,000호 발행까지 달려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

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 고문의 한 사람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걸여온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

다. 그러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복음의 깃발을 들고 묵묵히 걸어온 인고의 세월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일보에 감사한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따뜻한 글과 기사들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맑은 샘물과 같은 신문이 우리 곁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위브릿지' 사역을 통해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앞장선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했던 많은 사역을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1,000호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일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도전하며 기도합니다.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실한 발걸음으로 이어온 섬김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교회

“성실함으로 이어 갈 기독교 언론의 사명”

기독교일보의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십여 년 전의 기억입니다. 현 기독교일보 대표로 섬기시는 이인규 목사님께서 LA 동부 지역 교회들을 위해 신문을 직접 전달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간이면 어김없이 새로 발간된 신문을 한 아름 안고 저희 교회 마당에 모습을 드러내곤 하

습니다.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함께 그 배달(?)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교회의 안부를 묻고 지역의 다른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협 부활절 연합예배, 동부교협 연합 성탄 찬양 모임, 동부교협 목회자 세미나 등에 열심히 참여하여 그 소식을 다른 교계 지도자들에게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 성실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기독교일보는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기사 제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기독교일보를 통해 함께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고 환영할 만한 발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국과 이민 교계의 소식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 간과 하기 쉬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 주셔서 우리 한인 교회 지도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000호, 이민교회 역사 속 귀한 발걸음 남겨



샘 신 목사
샘 중앙 커뮤니티교회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문 한 호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1,000호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려는 mission과 calling으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의 기준으로 진실을 전하는 Christian medi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일보는 이민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려 노력해 온 기독교일보의 사역은 이민교회 공동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샘 중앙 커뮤니티교회(Sam Central Community Church)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또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직전 회장으로 한인 교회의 여러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또한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으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건강한 기독교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인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일보 1,000호는 단순한 신문 기록이 아니라 이민교회 역사 속에 남는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언론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기독교일보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천 미디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잡한 사회 현상 신앙으로 해석 목회에 영감 제공



공인 목사
휴스턴 새누리교회

기독교일보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텍사스 지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맞이하는 이번 1,000호는 저에게도 남다른 감동이자 큰 기쁨입니다.

저는 기독교일보가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균형 잡힌 관점을 통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확인하곤 합니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 주는 기독교일보의 정체성은 텍사스 지역 목회 현장과 성도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 늘 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역에 기독교일보 가족으로서, 그리고 든든한 동역자로서 함께 발맞추어 걷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일보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교회와 세상을 잇는 따뜻한 가교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000호를 넘어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독교일보의 모든 사역과 동역자들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사 한 편이 피워 낸 꽃



이혜진 목사
아틀란타 벨렐교회

아틀란타 벨렐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절이었을 때, 기독교일보가 정성 다해 써 주신 창립 기사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그 기사가 작은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약한 시작과 매년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담아 준 기독교일보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에 출간한

『말꽃』이라는 책을 보니, 말은 각 사람의 마음에 날아가 꽃으로 피어난다고 합니다.

1,000호의 지령을 발간하는 동안 그 안에 실린 많은 기사들이 지친 이민자들의 마음 한켠에, 그리고 지역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남침례교단 (SBC) 6대 신학교
- 북미 최대규모로 한국학생 700여명 재학중
- F-1을 위한 I-20 발급/100% 온라인으로 가능
- ATS 및 HLC 정식인가/저렴한 등록금
- 신약학 철학박사 (Ph.D.)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교육학 박사 (Ed.D.)
-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성경상담학 석사 (MABC)
- 신학연구석사 (MTS)
- 워십미니스트리 (MTS-NM with 어노인팅, 아이자야픽스티원, 워십인크라이스트)



박성진 학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영스칼라

GPA 학점 관리

- 1:1 튜터링
- 수업 스케줄
- 1:1 성적 상담

과외 활동

- 동아리 활동
- 자원봉사
- 여름, 겨울 캠프

대학 컨설팅

- 1:1상담, 컨설팅
- 에세이 첨삭
- 대학 선택
- 전공선택, 진로상담
- 비교과 활동 준비
- 레쥬메(리력서)
- 대학지원
- 인터뷰 연습

www.ysprep.com



* 시험준비반 프로그램, SAT, ACT, AP, 사립학교 준비반이 있습니다. 리더쉽, 인턴쉽,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남가주 지점 : San Marino (626) 286-0200, La Canada (818) 864-6855, Irvine (949) 880-4329
- 북가주 지점 : Cupertino (408) 352-5141
- 한국, 강남 압구정 : (02) 543-7388

화재 속 기적처럼, 1,000호로 전해진 믿음의 이야기



오명찬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비판과 정죄보다 치유와 위로의 언론”

미주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동부에서 LA 벨리로 이주하며 우연히 접한 미주 기독일보는 어느덧 제 사역과 신앙의 여정 속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 ‘Woolsey Fire’로 교회 건물 근처까지 화재가 번지고 성도들이 강제 대피해야 했던 절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화재 속에 경험한 세 가지 기적’이라는 글로 담아 기독일보에 특별기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 많은 이민 성도들이

깊은 위로와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론이 전하는 복음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일보가 비판과 정죄의 칼보다, 치료와 위로의 붓대를 들고 상처 입은 교회와 성도들 곁에서 온 언론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

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며, 미주 이민자들이 담대히 살아내야 할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계속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호의 기록, 흔들리지 않은 나침반



김종규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천 번의 발행이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천 번의 고민과 천 번의 기도, 그리고 천 번의 결단입니다.
세속의 파도가 교회의 문턱까지 밀려오는 시대에, 기독일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원칙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동성혼의 물결 앞에서, 낙태의 논란 앞에서, 그리고 교계 내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앞에서도 기독일보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말하는 언론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국의 민감한 사회적 긴장, 미국의 정치적 격변, 이민 사회의 애환까지, 기

독일보는 그 모든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며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남가주의 새벽과 워싱턴의 아침, 그리고 서울의 저녁을 하나의 신앙 안에서 잇는 가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침반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기독일보가 천 호를 맞는 오늘, 그 묵묵한 사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침반이 주님의 방향을 가리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을 이천 호를 넘어 그 이후까지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기준에 대한 통찰 제공



고창현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시대 속에서 기독일보는 한인 교회가 세상을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창이자, 때로는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논의되는 여러 반성경적 법안과 문화적 흐름을 다룬 기사들은 교회가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고 시대를 살아가도록 돕는 귀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 같은 언론으로 계속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독일보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선 언론



고광선 목사
한길교회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 달려온 기독일보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 집 앞으로 배달되던 종이신문이 사라졌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말하기’의 구술 문화에서 인쇄된 활자의 ‘쓰기’로 전환됐던 문자 문화가, 이제는 제3의 매체를 통해 ‘보여주기’로 바뀌어 버린 감각 문화의 뉴미디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과잉 정보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왜곡된 신념들을 수집하는 매체들 속에서, 기독일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정직하고 바른 기독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도록 나눔과 섬김의 연대를 이루는 다리를 놓는 ‘위브릿지(We Bridge)’와 같은 귀한 사역들도 펼쳐 왔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2,000호까지 이 수고로운 사명을 계속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소외된 곳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잃지 않고, 정죄의 비판보다 회복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복음의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새로운 서사를 기록해 가는 기독일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령 1,000호라는 이정표를 세운 기독일보의 한 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좋은

신앙적 일관성과 진리에의 소신



최현규 목사
주님 Church

하는 귀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변화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교회와 이민 성도들의 목소리까지 섬세하게 담아내신 노력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헌신입니다. 기독일보가 보여 주신 신앙적 일관성과 진리를 향한 소신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미주 한인 교회를 하나로 잇고 진리를 전하며,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신문사와 모든 직원 위에 늘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는 미주 한인교회들을 교단의 경계를 넘어 연결하고, 진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예배가 회복 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평화교회

2026년 표어: 영적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수요 Bible Academy: 오후 7시(학기별)
- 금요기도회: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오전6시(화~토)



담임 김은목 목사

주소 및 전화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251-9191

USA-California를 복음화 하자! - MEX

한빛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디아스포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자의 마음을 품은 언론”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독일보와 이인규 대표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주 복음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씬 없이 걸어온 기독일보가 마침내 지령 1,000호라는 뜻깊은 이정표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시대 앞에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기독일보는 교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복음의 지평을 넓히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독일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역할을 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자

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일보는 We Bridge 사역을 통해 미자립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신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미자립 교회와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기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묵묵히 다리가 되어 주는 기독일보의 사역을 보며 큰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물질의 나눔을 넘어 ‘연합(Union)’, ‘나눔(Sharing)’, ‘세움(Building)’이라는 복음의 가치를 실

천하는 모습은 이 시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귀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령 1,000호를 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신문으로 계속해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창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일천 번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시대를 비추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기독일보는 단순한 언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시대를 비추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깨우침과 분별의 역할을 언론의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위에서 시대의 흐름을 해석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온 귀한 사역에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지령 1,000호 발행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

린 일천 번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기독일보가 지난 세월 동안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온 이 수고와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의 중심에서 헌신해 오신 이인규 목사님과 스태프들의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 드린 믿음의 제물과도 같은 귀한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해 온 그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1,000호가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구경모 목사
한빛장로교회

신실한 걸음이 만든 선물, 1,000호

지령 1,000호가 담고 있는 무게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 담긴 은혜만큼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한 호 한 호 지면을 채우며 걸어온 시간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기에, 오늘의 1,000호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신실하게 걸어온 이들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인규 목사님과 그 긴 여정을 함께해 온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독일보가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e Bridge 사역을 통해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와 교회를 잇는 다리를 놓아 온 일은 많은 용기

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론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로 이렇게까지 쓰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신문의 존재는 충분히 귀합니다.

기독일보의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 또한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언어와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그 수고는, 이민 교회의 내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눈과 그들을 품는 가슴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의 이민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기독일보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지난 22년, 8,000여 일 동안 기독일보의 걸을 지켜주신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이웃의 삶을 구하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한어예배 : 주일 11:00am
Hispanic : 주일 2:00 pm
수요일예배 :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화 ~ 토)

주소 및 전화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215 - 6029



담임 샘 신 목사

캘리포니아 주 상원 26지구 공화당 후보 출마

“저는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등록 QR CODE
70Hour Prayer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교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